

동네방네 자랑하기

우리 동네 '김포'

글. 안영익 tbsFM 기술국 송출부 기술감독

‘김포평야, 김포 금쌀, 김포공항’(1958년 국제공항 개항 당시 행정구역이 경기도 김포군 양서면이었기 때문에 ‘김포 국제공항’이라 명명되었으나, 1963년 행정구역 개편 이후로 서울특별시에 편입)

오랫동안 김포를 대표하는 이미지이자 김포 하면 떠오르는 상징적인 것들이다. 왠지 올드한 느낌이다. 하지만 그뿐일까. 김포한강신도시가 개발되고 최근 김포도시철도까지 개통되면서 웅크렸던 김포가 기지개를 켜는 듯하다. 교통이 편리한 한강변 도시, 숲세권 도시, 친환경생태도시 등 이제는 김포가 신도시의 이미지로 거듭나고 있다. 개인적으로 김포에 터를 잡고 산지 약 17년. 첫인상은 마치 여백이 많은 그림 같았다. 당시 김포는 개발되지 못한 곳도 많았고 도시적인 느낌보다 친환경적인 느낌이 더 강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후 도시개발계획이 이뤄지면서 하나, 둘 김포의 여백이 채워지고 유입인구가 늘어나면서 변화의 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덩달아 김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역사가 있는 곳, 자연이 어우러진 곳, 가족과 함께하기에 더욱 쾌적한 곳으로 성장한 김포. 김포에 살면서 그동안 주변에 자랑하고 싶었던 김포의 명물, 김포의 랜드마크를 소개하고자 한다.

김포 장릉



김포 장릉이란?

- 사적 제202호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
- 조선 16대 왕 인조의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인현왕후 구 씨의 능
- 같은 언덕에 왕과 왕비의 봉분을 나란히 조성한 쌍릉의 형식
- 원종의 무덤은 원래 양주시에 위치했으나 1627년(인조5) 현 위치로 옮겨졌고, 1632년에 왕으로 추존되면서 장릉(章陵)이라는 능호를 받음
- 위치 : 경기도 김포시 장릉로 79

장릉은 김포에 위치한 유일한 왕릉으로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조선왕릉 40기 중 한 곳이다. 현재 지역에서는 역사를 탐방할 수 있는 문화사적지이자 아이들의 생태체험장, 친환경 산책로 등 다양한 모습으로 사랑받고 있다. 입구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장릉 역사문화관’이 눈에 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던가. 이곳에는 장릉에 대한 시청각자료부터 다양한 관람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어 장릉을 둘러보기 전에 방문하면 좋을 듯하다. 이곳을 지나면 본격적인 산책로가 시작된다. 키 큰 나무들이 울창한 장릉 숲은 화려하진 않지만 수려하고, 우거진 수풀들은 어지럽지 않게 잘 관리된 느낌이다. 산책로 초입에서부터 빼곡히 들어선 소나무 숲길이 방문객들을 맞이한다. 그 사이로 불어오



나란히 놓인 쌍릉

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 걷다 보면 싱그러운 기운이 몸속 가득 차오르는 것 같다. 장릉의 산책로는 경사가 완만하고 평평한 흙길로 이뤄져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산책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이곳에서는 견학 나온 어린이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소박하고 정갈한 느낌의 한옥을 만날 수 있는데 이는 왕릉을 관리하는 능참봉이 상주하며 제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준비를 진행했던 재실이라는 곳이다. 재실을 지나 얼마 가지 않아 우뚝 솟은 홍살문과 함께 그 뒤로 너른 잔디밭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는 그림 같은 풍경을 마주하게 되는데 이곳이 바로 추존 원종과 인현왕후의 능이 있는 곳이다. 해마다 이곳에서는 제향이 진행되는데 제향이란 역대 왕과 왕비의 제사로 조선시대부터 현재까

지 600여 년을 이어온 왕실의 제례문화다. 홍살문을 지나면 정자각까지 돌길이 이어진다. 왼쪽으로 약간 높은 길은 제향 시 향과 축문을 들고 가는 향로, 오른쪽으로 낮은 길은 제향을 드리러 온 왕이 걷는 어로라 하여 관람객들은 어로를 따라 이동하도록 안내되어 있다. 정자각에 오르면 창틀 너머로 나란히 선 두 개의 능이 보인다. 대원군의 묘로 만들었다가 추존된 왕릉인지라 봉분은 간결한 모습이지만 병풍처럼 둘러싼 장릉산의 전경과 어우러진 모습은 더없이 인상적이다.

관람 TIP!

장릉을 방문할 때 해설사의 도움을 받으면 더욱 재밌고,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장릉의 역사와 조선왕릉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루에 세 번 장릉 해설사 운영 시간이 정해져 있다.)



장릉 역사박물관



장릉 역사박물관 내부



재실



정자각에서 바라보는 쌍릉

김포 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김포 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이란?

- 김포한강신도시를 건설하면서 한강변 습지에 기존 야생조류와 철새의 서식처를 보존하고자 조성(2015년 개장)
- 낼알들녘, 생태습지, 탐방수로, 조망마루, 산책길 등을 갖춘 수도권 최대 조류, 생태 특화공원
- 위치 :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 11로 455

숲세권이라 불리며 높은 녹지 비율을 자랑하는 김포한강신도시 운양동. 그곳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생태공원인 ‘김포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을 만날 수 있다. 빠르게 들어선 아파트 단지에서 눈을 돌리면 시원한 강바람과 함께 푸른 녹지의 공원이 펼쳐진다. 에코파크로도 불리는 이곳은 야생조류와 철새의 서식처를 보존하고자 조성된 생태공원으로 2015년 개장 이후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인 저어새를 비롯해 재두루미, 흑두루미, 새홀리기, 큰말뚝가리, 참매, 독수리, 재빛개구리매, 새매 등 9종의 멸종위기야생생물과 원앙, 황조롱이, 비둘기조롱이 등 3종의 천연기념물, 그 밖에 고라니와 족제비 등의 포유류도 관찰됐으며 지난 겨울에는 천연기념물 제205-2호이자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인 노랑부리저어새 4마리가 습지원에서 취·서식 활동을 하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도시개발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자연과 공존하고자 했던 노력의 결과들이다. 이곳은 철새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소중한 쉼터를 제공한다.



에코파크로도 불리는 친환경 공원



다양한 테마로 구성된 공원

봄에는 제방길을 따라 다투어 피어난 봄꽃들로, 여름엔 녹음으로 우거진 싱그러운 숲길로, 가을이면 낼알 들녘에 펼쳐진 황금벌판의 물결이, 겨울엔 너른 들판 위로 나르는 야생 철새들의 군무로... 철마다 모습을 바꾸며 빼어난 경관을 선사한다. 살아있는 생태학습장과 아름다운 풍경뿐만 아니라 공원을 산책할 수 있는 둘레길과 라이딩을 즐길 수 있는 자전거길이 갖춰져 있어 이곳 김포 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은 온 가족이 함께 즐기기에 더할 나위 없다.

김포 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전경





고층 아파트와 어우러진 전통가옥의 풍경

김포 아트빌리지



김포 아트빌리지란?

- 모담산 8만여 m²(2만4천 평) 부지에 자리한 복합문화예술공간 (2018년 개관)
- 한옥마을과 각종 문화예술체험장, 창작스튜디오, 아트센터 전시관, 야외공연장, 전통놀이 체험마당 등으로 구성
- 위치 : 경기 김포시 모담공원로 170

모담산 끝자락. 고층 아파트 사이에 자리한 전통 한옥 단지의 모습이 이색적이다. 모담산의 소박한 풍경 속에 둘러싸여 맑고 단정한 한옥의 모습으로 눈길과 발길을 사로잡는 이곳은 김포의 떠오르는 랜드마크, 김포 아트빌리지다. 김포 아트빌리지는 한옥 14채를 비롯하여 아트센터 전

시관, 창작스튜디오, 야외공연장, 전통놀이 체험마당 등 총 26동의 건물로 구성된 복합문화예술공간이다. 전통 한옥에서 숙박 체험을 할 수 있는 한옥마을과 율놀이, 투호 놀이, 제기차기 등 다양한 전통놀이를 즐길 수 있는 전통놀이마당. 그리고 도예, 산수화, 금속공예 등의 체험 프로그램까지 남녀노소 함께 할 수 있는 다채로운 콘텐츠가 곳곳에 마련되어 있다. 그 밖에도 김포아트빌리지에서는 사계절 내내 문화행사와 공연, 전시들이 이어져 2018년 3월에 개관한 이래로 이곳을 찾는 관람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통은 살리되 불편하지 않고, 옛것을 배우되 지루하지 않아서 어른들에게는 추억의 즐거움을, 아이들에게는 색다른 경험을 선사한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고, 세대와 세대가 소통하는 이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특별한 하루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입구를 지키는 장승



쉬어가는 정자



아파트단지 옆 전통 가옥 모습



정갈한 한옥들로 구성된 아트빌리지 내부

경인 아라뱃길



경인 아라뱃길이란?

- 서해바다와 한강을 연결하는 국내 최초의 내륙운하 (2012년 개통)
- 길이 18km, 폭 80m, 수심 6.3m 규모
- 대표 명소 : 수향 8경
 수향 1경 - 서해(정서진) / 수향 2경 - 아라인천여객터미널
 수향 3경 - 시천가람터(아라파크웨이) / 수향 4경 - 아라폭포(아라마루)
 수향 5경 - 굴현나루, 수향원 / 수향 6경 - 두리생태공원
 수향 7경 - 아라김포여객터미널(아라마리나) / 수향 8경 - 한강(한강둔치)

김포 하면 새롭게 떠오르는 것이 바로 경인 아라뱃길이다.
경인 아라뱃길은 서해와 한강을 연결해주는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내륙운하로 2012년 5월에 정식 개통됐다. 행주대교 부근 아라 한강갑문에서 시작한 물줄기는 김포시를 지나 인천시 계양구를 거쳐, 인천시 서구를 통해 바다로 나아간다. 경인 아라뱃길의 개척시도는 무려 800여 년 전인 고려 고종 때 시작되었다고 한다. 당시 각 지방에서 거둔 조세를 중앙정부로 운송하던 조운(漕運) 항로가 김포와 강화도 사이의 바닷길을 거쳐 한강의 마포 경창으로 들어가는 항로였는데, 문제는 이 강화도의 바닷길이 만조 때만 운항이 가능했고 뱃길 또한 매우 위험했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안정적인 조운항로를 개척하고자 당시 실권자였던 최충헌의 아들 최 이가 인천 앞바다와 한강을 직접 연결하는 역사상 최초의 운하를 시도했지만, 원통현(현재 인천 원통이 고개) 구간의 암석층을 뚫지 못해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조

계양대교와 아라뱃길





아라마리나에 정박된 요트

선 시대에도 이와 같은 시도가 추진되었으나 기술의 한계로 인해 이뤄지지 못하고,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운하 건설이 추진되었으나 지역 개발 등의 문제로 번번이 성사되지 않았다. 그러다 1987년 굴포천 유역의 대홍수로 큰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자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었고 오랜 기간의 검토 끝에 2012년 마침내 경인 아라뱃길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선박의 운항을 위해 만든 운하지만 현재는 여행과 관광 코스로 더욱 각광을 받고 있다.

경인 아라뱃길을 즐기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유람선을 타고 뱃길을 이동하는 것과 수변을 따라 조성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것이다. 유람선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아라인천터미널과 아라김포터미널에서 운항을 하고 있다. 유유히 흐르는 뱃길을 따라가며 주변의 빼어난 경관을 감상하는 것이 포인트. 경인 아라뱃길에는 수향 8경이라 하여 한강에서부터 서해에 이르기까지 8가지 다채로운 테마가 펼쳐지는데, 1·2경은 포구(浦口), 3경은 교각, 4경은 낙수와

누각, 5경은 들판, 6경은 두물머리 습지, 7~8경은 나루터 등을 테마로 삼고 있다. 유람선 위에서 만찬을 즐기거나 볼꽃놀이를 경험하는 것도 묘미다.

아라뱃길을 찾는 많은 이들의 목적이 바로 자전거 라이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자전거 라이더들이 가장 선호하는 길이 바로 이곳 경인 아라뱃길. 경인 아라뱃길의 자전거도로는 한강 자전거도로와 연결되어 있어 자전거를 타고 서울 시내에서 서해까지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강에서 낙동강을 거쳐 부산까지 이어지는 총 거리 633km의 국토종주 자전거도로의 시발점도 바로 아라인천여객터미널에 있기 때문이다. 자전거 하나로 강과 바다를 모두 만날 수 있는 매력 덕분에 경인 아라뱃길은 자전거 라이더들의 명소가 됐다. 또 곳곳에 자전거 대여소가 있어 어렵지 않게 라이딩 무리에 합류가 가능하다.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기분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다면 이곳 경인 아라뱃길을 추천한다. 🚲